

責任不在의 교육

金 春 美

(高麗大 日語日文學科)

나는 教育學 전공자는 아니다. 그러나 教育에 증사하며 말석을 더럽히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의 一般論은 얘기해도 되리라 생각한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한다. 이것은 100년 앞의 성과까지 고려하여 教育政策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동시에 그 성과가 단기간에 가시화되기 어렵다는 사실도 시사한다. 오늘 세운 교육정책이 피교육자의 사상이나 인생관으로 內面化하여 삶 속에서 실천과 결부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된다. 다시 말해 단기간에 評價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된다.

이것은 한 예에 지나지 않지만, '86~'87년도에 論述考査가 입시에 도입되었던 적이 있다. 고교에서 논술 교육을 받고 입학한 학생들의 리포트나 의견 개진이 눈에 띄게 논리적·체계적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째서 이번 신입생들은 이렇게 발표를 잘하지?”라고 比較文學 시간에 질문한 기억이 있으니까 틀림없는 일이다. 아는 것은 많지만 자기 의견 없는 학생, 단편적인 지식을 종합하여 사물의 總體的 認識에 도달할 줄 모르는 학생, 막연한 생각은 있지만 그것을 정리하여 논리화시키지 못하는 학생. 논술교사가 2년 만에 폐지된 때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는 유감스럽게 느껴진다. 시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副作用을 충분히 고려하고도 그 시책이 장기적으로는 유익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채택된 것이었다면 당연히 부작용에 대한 補完策도 세워져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막스 웨버는 *The Methodology of the Social Science*에서 정책 수립자가 하나의 정책을 세울 때에는 다양하게 파생될 수 있는 사태를 가상해야 할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모든 정책은 보다 나은 결실을 위한 개선책이겠으나, 시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작용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정책 수립자는 그 부작용까지 생각하고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多角的으로 검토하여 그 대책까지 세운 이후에 새로운 시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론이다.

당장에 호응을 못 받는다 해도 확고한 信念과 哲學에 꿰뚫린 정책이었다면 그 수립자는 자리를 걸고서라도 비판에 대해 그 정책의 근본 취지와 성과, 그리고 예측했던 부작용, 그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장래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뚜렷이 밝힐 수 있고 그 근거와 기준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다소간의 부작용을 수용할 만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우리 국민은 지나고 있다고 믿는다.

결국 모든 문제는 철학과 비전의 有無와 직결되는 것 같다. 19세기 후반부터 놀라운 발전을 거듭한 科學文明은 인간에게 보다 편리한 삶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人間다운 삶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정보가 인간보다 우선하고, 증권이나 부동산 시세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된 현대사회는 인간으로 하여금 도시라는 거대한 철근 콘크리트 상자 안에서 고독을 짓씌우며 浮遊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人間적인 生存權 確保를 위해 절망적인 구애를 시도하고자 한다. 교육이 정보의 축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이렇게 해서 그 타당성을 획득한다.

일찍이 기따트라 도오코꾸(北村透谷 : 1868~1894)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德川시대의 지배논리는 유교도덕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실천적 도덕이었지, 인간의 內的 生命을 살리는 것은 아니었다…忠孝를 논하지만 그것은 교리를 따르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辯論家가 교육적어에 忠孝가 제시되어 있으니 이를 따라야 한다고 논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인간의 근본 생명에서 우러나는 忠孝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內部生命論』, 1893.5).

총과 효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덕목이다. 그러나 그것이 自己檢討와 省察을 거친 후에 자발적으로 획득된 것이 아니고 윤리시간에 주입식으로 주어진 덕목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 25세에 자살한 청년 經世家의 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렇게 오랜 기간 효를 강조하며 교육하여 왔지만 소외감을 못이겨 자살까지 하는 어버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 근로의 존귀함을 논하여 왔지만 근로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타락하고 그 자체가 지니는 보람이나 희열과 같은 정신적 측면은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사회,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지만 정의가 무엇인지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현실, 통일, 통일 하지만 그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나 철학은 논의되지도 않는 양상.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온통 입근으로, 손짓과 몸짓으로 응집되어 버린, 자기 PR과 성과 자랑 경쟁무대로 화해버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 배워 온 수많은 덕목이 內部生命에서 우러나오도록 유도되지 않았을 때 도달하는 귀착점을 우리는 묵도하고 있다.

뚜렷한 철학에 꿰뚫려진 價値觀의 정립이 교육의 최우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이래서 자명해진다. 걸프전쟁은 20여 년 전에 토플러가 예고한 제3의 물결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시켰다. 정보수집 능력과 첨단 과학기술의 축적 없이는 개인이든 국가든 나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입증된 적도 없을 것이다. 교육의 목적 가운데 정확한 現實認識 능력과 유연한 對處 능력의 함양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유연한 사고력이 단순히 현실 대처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생존양식이 공존하는 현실을 수용하고 그 공존을 보장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유연한 사고력과 다각적인 검토능력 등은 어떤 의미에서는 實戰에 필요한 행동강령이다. 좀더 근본적으로는 다양한 논리를 소화하여 融和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가치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내적 핵의 정립 말이다.

內的 核은 클 필요도 요란할 필요도 없다. 어떻게 생각하면 핵이 작으면 작을수록 가변적인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고, 도그마티즘에 함몰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핵은 작되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거나 꺾이지 않을 만큼 단단해야 한다. 니토베 이나조(新渡戶稻造 : 1862~1933)라는 일본의 사상가이자 교육자는 그 핵을

‘自主’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때의 자주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主人을 뜻한다. 자기의 왕국인 마음이 옳다고 믿는 바를 따르는 자만이 자주적 인간이라는 이야기이다. 자주적 인간이란 결국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良心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를 수 있는 용기있는 인간이라 할 수 있다. Honor는 honest에서 유래하였고 Ehre(존경, 명예)는 ehrlich(정직한)가 기초가 되며 ehrenhaft(존경할 만한, 고결한, 믿을 만한)는 명예로운 正直을 뜻한다. 名譽란 궁극적으로 정직함에서 획득되고, 그 기준은 자기 양심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음이 될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던 尹東柱의 詩가 여전히 수 많은 청소년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적시해야 한다.

물질문명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인간의 本質은 별로 변한 바가 없는 것 같다. 희망적일 수도 비관적일 수도 있는 이 사실이 왜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의 核을 정립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사수할 수 있는 勇氣를 갖도록 교육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준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강요받는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선택을 하기 전에 그것이 자신의 良心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Robert Frost는 숲 속의 두 길 중 하나를 택한 후 “I shall be telling this with a sigh/Somewhere ages and ages hence;/Two roads diverged in a wood,/and I-/I took the less traveled by,/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The Road Not Taken’) 이라고 노래했지만, 어쩌면 自由意志에 의한 선택은 숙명처럼 후회를 수반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택으로 점철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상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야 할 것이다. 한번 선택한 이상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다.

선택이란 主體的 行爲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책임이 수반된다. 責任不在가 논란이 되는 상황은 역으로 말해 주체적 선택의 부재를 의미하고, 자신을 지탱하는 내적 핵—철학의 부재와도 통한다. 후쓰자와 유끼치(福澤諭吉: 1835~1901)는 일본이 근대국가의 막을 연 明治 초기에 이미 교육을 통한 국민의식 개혁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정부의 강제적 규제에 의한 개혁은 처음에는 쉬운 듯하나 곧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마치 장벽에 부딪친 것처럼 寸步를 나아가기 어려워진다.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寸을 전진하려 하다가는 자칫 격하게 되어 尺을 후퇴하게 되기도 한다. 人心의 개혁이란 처음에는 어려운 듯하나 달성된 후에는 어려움 없이 政令法律이나 의·식·주와 같은 유형의 개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民心이 천심이라지만 그 민심의 意識水準이 향상되지 않으면 후일을 도모할 수 없다는 그의 논리는 유형의 선진화에 급급하나 정신적 황폐함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타당하게 들린다. 쉬운 길을 택하다 오히려 尺을 후퇴하게 되거나 어려움에 부딪쳐 격해지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것을 도외시한 拙速主義 때문이다. 스스로 알아서, 마음에서 우러나 하는 효도, 공부, 근로는 결코 부담이 아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강제로 규제해도 아무도 없으면 거리낌없이 위반하는 것은 결국 자발적인 질서의식에 접맥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육은 그간 너무 근본을 도외시한 채 표면적인 理想論에 치우쳐 온 것이 아닐까? 교육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根本부터 생각하고 일관된 기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취사선택하는 능력의 함양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責任不在의 고통을 좀더 오래 겪게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